

2019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_문화예술교육 유관학회 세미나 한국무용과학회 제40회 춘계학술심포지엄

영유아, 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무용

일시: 2019년 5월 25일(토) 오전 10시 20분~12시 20분

장소: 대학로 예술가의 집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관: 한국무용과학회

www.dancescience.or.kr

ksds.jams.or.kr



“본 자료집은 2019년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

제40회 한국무용과학회 춘계학술심포지엄

“영유아, 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무용”

일정		내용
1부	10:20~10:30	등록 개 회 사 축 사 내외빈소개
	10:30~10:40	【제 1 발표】 발표주제: 영유아, 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의 역할과 과제 ■ 발표자: 홍애령 상명대학교 전임연구교수
	10:40~11:00	【제 2 발표】 발표주제: 영유아·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다시 보고 읽고 쓰다_맥락적 접근에서 살펴본 움직임 교육 ■ 발표자: 강진주 창작소 바람 대표
	11:00~11:10	휴 식
2부	11:10~11:30	【제 3 발표】 발표주제: 문화예술교육의 원천, 무용 아카이브 ■ 발표자: 김도연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연구원
	11:30~11:50	【제 4 발표】 발표주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한 유아 및 어린이 발레교육 ■ 발표자: 최진수 서울발레시어터 단장 노민혁 서울발레시어터 공연사업팀장
	11:50~12:10	【종합토론】 임미혜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본부장 오정은 무용역사기록학회 대외협력분과위원 조진희 서원대학교 외래교수 태혜신 가톨릭관동대학교 초빙교수
	12:10~12:20	폐 회 사

박재홍
(한국무용과학회 회장)
조남규
(한국무용협회 이사장)

사회: 홍애령
(한국무용과학회
총무이사)

박재홍
(한국무용과학회 회장)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무용과학회 회장 박재홍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제40회 한국무용과학회 춘계학술심포지엄에 참석해주신 임원 및 회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국무용과학회는 1999년 무용의 합리적, 과학적 연구를 추구하고자 창립하였으며 매년 봄과 가을에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술대회를 통해 무용학 정립을 위한 과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추세의 변화에 따른 무용의 과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제40회 춘계학술심포지엄은 작년에 이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유관학회 세미나로 진행됩니다. 올해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의 주제에 맞추어 <영유아, 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무용>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문화예술교육의 비약적 발전을 이루어온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무용이 영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공연예술, 교육콘텐츠, 교수매체로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예술계와 무용계에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은 때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학술심포지엄에 특별히 시간을 내어 발표 준비를 해주신 발표자분들과 토론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사를 위해 많은 지원과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학회 이사님들과 사무국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오늘 학술심포지엄이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5월 25일
한국무용과학회 회장 **박 재 홍**

축 사

안녕하십니까? (사) 한국무용협회 이사장 조남규입니다.

먼저 제40회 한국무용과학회 춘계학술심포지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한국무용협회는 무용의 대중화를 위해 8개의 무용경연대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대중의 참여를 위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무용계 인력의 고용창출 및 대중의 춤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인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국립무용센터 건립 추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 무용학 발전에 체계적 연구를 기울이고 있는 한국무용과학회의 행보를 응원합니다. 또한 이번 학술심포지엄에서 다루어질 <영유아, 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무용>이라는 주제에 관해 풍성한 학술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무용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며, 공연과 교육, 아카이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참석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서 함께 의견을 공유해주시면 더욱 내실 있는 심포지엄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학술심포지엄의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5월 25일

(사) 한국무용협회 이사장 **조 남 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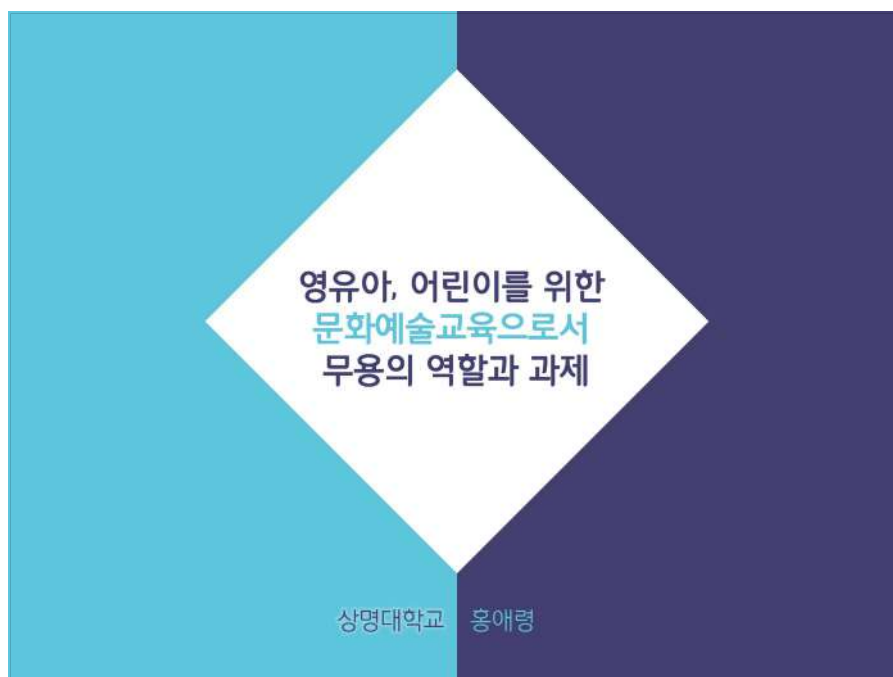
제 1 발표

영유아, 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의 역할과 과제

홍애령(상명대학교 전임연구교수)

영유아, 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의 역할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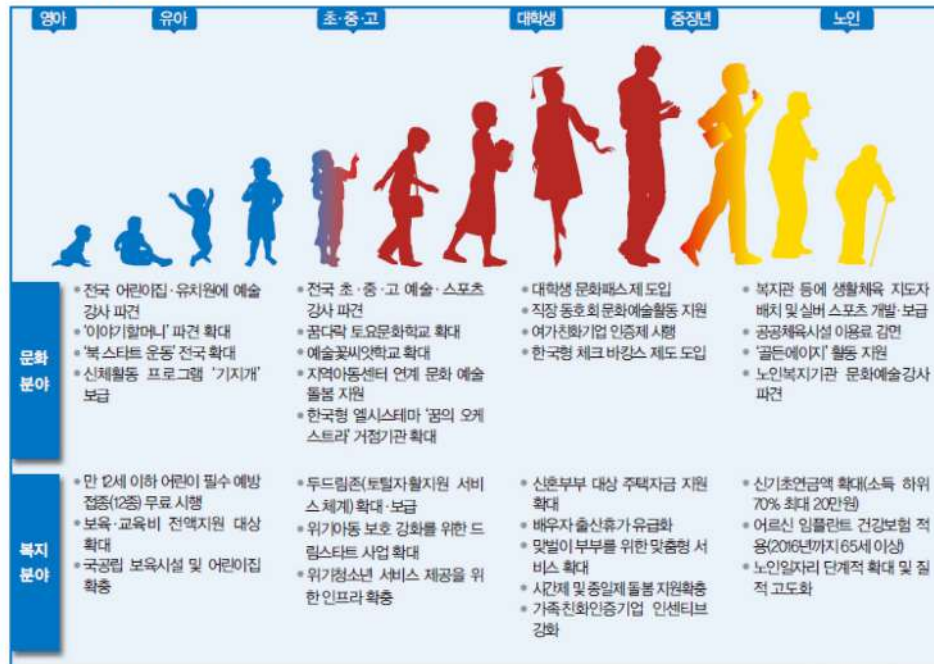
홍애령(상명대학교 전임연구교수)



아주 어린 사람들의 역사



☑ 생애주기별 국민공감 정책



자료: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3

2022년까지 생애 기본생활 보장 계획

자료: 2019년



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비전과 전략**

(2018-2022)

비전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목표 '문화예술교육'의 재도약 - 문화예술교육의 지속 성장과 질적 제고

추진전략

-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추진 체계화
- 지역 문화예술교육 공간 및 자원과의 연계 강화
- 문화예술교육 협력망 활성화

수요자 중심 교육 다각화

-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확대
-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속 확대
- 문화예술교육 자원 다각화

문화예술교육 기반 고도화

- 기획 및 연구역량 강화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역량 강화
- 문화예술교육 국제교류 활성화
- 가치 확산 및 홍보 강화

Copyright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Developed by KCS

1.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확대



유아

- 창의놀이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유아교사 교육 추진



아동·청소년

- 학교교육과정 연계된 사업 다각화
-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의 확대



청년·장년

- 직업인·취업 지원 체계
- 지역주민 대상 관련 기관 연계 지원



장년·노년

- 생애전환기 중장년층 문화예술학교 운영
- 노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다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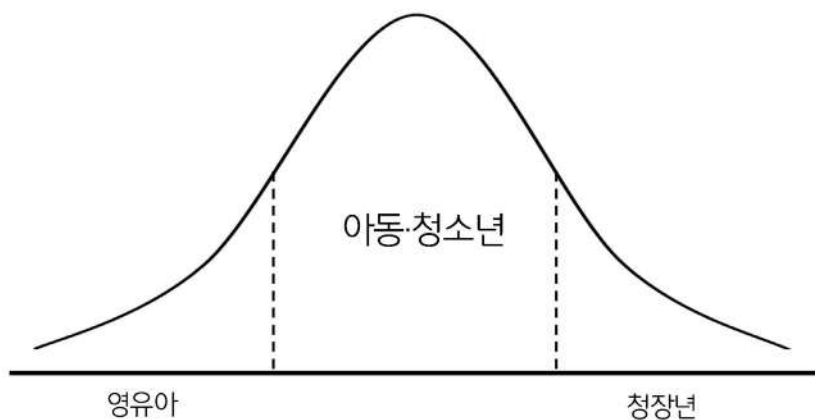
5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뜨거운 관심!

그러나, 그 관심은 아동·청소년에 집중

어린이집, 유치원이나 50대 이후의 문화예술교육에 쏟는 관심과 투자는 낮은 편



6

☑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9. 3. 25.] [법률 제16078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 2019. 4. 16.] [법률 제16248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아주 어린 사람들을 위한 보육, 복지는 무엇일까?

공연, 교육

☐ 이들의 바람과 반응에 부응하였는가?

프로그램

☐ 이들의 몸과 마음의 성장에 무용은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가?

움직임, 지식

영유아, 어린이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

7



대상에 대한 이해, 독창적 콘텐츠, 차별화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유아, 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

제 2 발표

영유아 · 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다시 보고 읽고 쓰다 _맥락적 접근에서 살펴본 움직임 교육

강진주(창작소 바람 대표)

영유아·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다시 보고 읽고 쓰다 _ 맥락적 접근에서 살펴본 움직임 교육

강진주 (창작소 바람 대표)

I. 서론

인간의 이기에서 비롯된 자연의 경고음¹⁾,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발생한 부의 격차로 인한 불균형²⁾, 사회구조 안에서의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한 복지³⁾,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기술문명으로 인한 미래에 대한 예측하기 어렵고 복잡 다양한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이슈에 대해 인간과 자연, 그리고 사회에 대한 이해와 함께 개인의 안전한 삶과 더불어 건강한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모든 이들이 누려야 할 가치로서 인류의 미래에 대하여 질문하고 자치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지금의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새로운 질서와 패러다임에 대해 영역 또는 계층 간의 구분 짓기 형태가 아닌 모두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적 관점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들을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가 수 있도록 스스로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면적이고 다각도로 살펴 볼 수 있는 통찰력과 상상력을 가지고 바라볼 줄 아는 경험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험은 개인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며,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가는 문화, 그리고 그들의 나아가 범지구적으로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고 더불어서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능동적, 자기주도적으로 수집하고 비판적으로 분석, 종합할 수 있는 창의적 문제해결능력(Runco, 2004)⁴⁾을 키우는 것은 핵심역량을 길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개인이 주체가 되어 사회의 여러 상황과

1) 제주 앞바다에서 멸종위기종 바다거북에게 위치추적기와 개체인식표를 바다거북 등껍질에 부착하여 개체수 회복을 위해 방류하였지만, 11일 만에 역시 뱃속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잔뜩 차서 폐사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SBS 뉴스, 2019.05.05. 뱃속 플라스틱 쓰레기 '가득'...폐사해 돌아온 바다거북)

2) 소설가 이광수는 2019년 4월 경남 진주 방화 사건, 2018년 10월 거제 선착장 살인사건,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 2012년 8월 서울 여의도 칼부림 사건과 같은 끔찍한 문지마시 방화·살인 범죄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는 최근 사건들과 함께 판카지 미슈라(Pankaj Mishra)의 '분노의 시대: 현재의 역사'에 대해 역설한다. (경남매일, 2019.04.25 왜 우리는 분노 하는가?)

3) 무상급식과 고교무상교육에 이어, 최근에 열린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하여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공동설립자이자 영국 시민소득트러스트 의장인 애니 밀러(Annie Miller)는 국제컨퍼런스 기조연설을 통해 '정의' '공정' '평화' '자유' '복지' 등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위한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과 기본소득 확산을 위한 깊은 인류애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행동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경기도 뉴스 포털 보도자료, 2019. 4. 26.)

4)5) 강인애, 이현민, 김양수 (2015), 온라인 박물관을 활용한 시각문화미술교육의 수업사례: 맥락적 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중심으로, p2

문제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에서도 실제 삶과 지식의 밀접한 연계(Giaccardi, 2006)⁵⁾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임미혜, 진은영(2018)은 21세기형 디지털 리터러시⁶⁾ 핵심역량으로서 3C⁷⁾를 키우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에 상관없이 일상의 경험에서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내는 창조적, 심미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창조적 활동은 질적 판단을 필요로 하며, 질적 판단은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상상, 판단, 선택하는 자기 실천의 기회를 통해 증진되기 때문에 수많은 질적 경험을 제공하는 인문학과 예술은 디지털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더욱 중요해진다고 강조하였다.

황정옥(2018)은 인문·교양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은 자기이해와 자기표현으로 구축되는 예술적 특질은 삶의 과정에서 기록하고 묘사되는 삶의 지향성을 내포하므로 삶의 성찰을 위한 경험이 강조되는 실천 영역으로 공유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이 시대가 강조하고 있는 우리의 삶과 사회적 맥락의 요소를 가지고 다채롭게 진행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방향과 시도와 매우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비판적 사고 및 판단력, 커뮤니케이션, 협업의 3C 핵심역량을 길러내기 위한 삶과 연계된 인문예술교육, 움직임 교육은 어떻게 가능할까?’ 혹은 역으로 ‘예술을 통한 교육에서 살펴본 움직임 교육은 삶의 맥락에서 어떻게 작용할까?’, ‘움직임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창조적 공간으로서 어떻게 변신 가능한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출발을 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연구 및 실행하는 실천적 연구자로서 현장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수행되는 연구로서 실재적이고 구체적인 영유아·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으로서 움직임 예술교육에 대하여 다시 보고 읽고 쓰는 과정에서 분석하고 가능성을 찾고자 한다.

II. 창조적 공간으로서의 몸

우리는 몸을 통하여 경험한다. 일상에서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고, 소리를 듣고 손으로 만지며, 다양한 감각기관으로부터 느끼고 생각하며 세상을 경험한다. 그래서 각자의 몸을 또 하나의 세계이자 우주가 된다. 즉, 몸은 인간의 역사성과 사회성이 포함되고 드러나는 삶의 현장이라는 것이다(조정희, 조기숙, 2014)⁸⁾. 움직임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표현 매체이자

6) “디지털 리터러시란 디지털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주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소양으로 윤리적 태도를 가지고 디지털 기술을 이해·활용하여 정보의 탐색 및 관리, 창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적 역량이다.” (임미혜 · 진은영, 2016 재인용; 계보경, 2017)

7) 전 세계적으로 21세기형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중 미래교육의 목표로 간주되는 핵심역량 3가지는 비판적 사고 및 판단력(Critical Thinking),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협업(Collaboration)을 지칭한다.

8) 메를로 폰티(Maurice Merleau Ponty, 1908~1961)는 몸이 주체가 되어 인간과 인간관계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다. 그는 인간 존재를 규명함에 있어서 그 중심을 ‘몸’으로 본 것이다. 몸을 능동적으로 바라보았으며, 몸이 인간을 세계와 결합시켜주는 주체적인 실존이라 정의하였다. 그는 이러한 주체적인 인간의 몸을 공간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한다.

9) 신상미, 김재리(2010)는 ‘인간의 언어 중 하나’로서 인간의 움직임에 대해 라빈(Laban, 1966)은 삶의 핵심이고, 몸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의도를 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소통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삶의 근원이 되는 움직임의 중요성과 유용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심신일원론(心身一元論)에 근거를 둔 것이다.

도구로서 실용적인 수단에서 표현적인 수단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하면서 언어를 능가하는 의사소통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표현이 예술적인 의미를 가질 때 그것은 무용 예술의 한 형태로 발전되기도 한다(신상미, 김재리 2010)⁹⁾. 이러한 맥락에서 몸을 통한 경험,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경험에 대해 삶 안에서 보다 확장해서 움직임 교육을 바라보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자신의 몸에 대하여 보다 감각·인지하여 탐구하도록 하는 과정은 무엇보다 어릴 때부터 풍부하게 경험하는 것은 중요하다. 몸의 감각을 통한 경험, 즉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놀이에서부터 비롯된 자연스러운 체화된 반복된 경험은 주체적 사고를 하기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움직임을 제시하고 수동적으로 수행할 때와 스스로 자신의 몸을 자각하면서 움직일 때 몸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¹⁰⁾ 라는 것이다. 그래서 놀이와 예술경험은 어릴 때부터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놀이는 어릴 때만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앞서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영유아·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움직임 교육의 사례를 통해 교육현장에 대한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펴보고자 한다.

1. 진행과정

1) 고양문화재단의 유아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통합예술교육 사례

고양문화재단 어울림문화학교 ‘창작여행! 몸으로 그리는 예술놀이터’는 2명의 TA(Teaching Artist)가 팀티칭의 형태로 2013년 여름학기에 시작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아이들과 만나고 있다. 예술은 특별한 누구만이 아닌 모두가 함께 향유할 수 있고, 인간과 세상의 다채로운 생각과 감정을 펼칠 수 있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과정을 경험하게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학기별 새로운 주제로 텍스트¹¹⁾를 가지고 3개월 단위로 봄학기부터 겨울학기까지 4학기로 진행되며, 1년의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계획·실행하고 있다. 두 개의 반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으며, 6-7세는 감각놀이 중심으로, 초등학교 1-4학년은 사고를 통한 해석하여 의미화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세상과 연결하여 만나고 있다.

10) 조정희, 조기숙(2010)은 무용수가 안무자가 제시하는 동작을 수동적으로 수행할 때와 무용수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몸을 자각하면서 움직일 때 몸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현격하게 드러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무용수가 주체적으로 동작을 실행했을 때 몸에 한 감각이 풍부해지고 몸의 주체성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밝혔다.

11) 프랑스 기호학자 롤랑 바르트(1915-1980)는 1970년을 전후, 급진적인 텍스트 개념을 제시하였다. 작품이 수용자의 반응과 결부되고, 가변적 의미체로 상정될 때, 작품은 텍스트가 된다. 수용자가 작품을 매개로 하여 자기대로 행한 반응과 체험이 텍스트이다. 작품과 독자사이의 관계에서 등장하게 된다. 바르트에 따르면, 독자는 작품의 상징적 속성 내에서 텍스트를 구성하고 인지하고 수용한다. 그 결과 텍스트에서 독자가 스스로 유희와 생산과 실천을 체험하는 상태를 바르트는 ‘즐거움’이라 명명 해서 즐거움과는 구분된다. 김채현(2008)

12) 수업프로세서는 2010, 2011, 2016년도 서울문화재단의 서울국제예술교육워크숍 미국 링컨센터 에듀케이션(LCE-Lincoln Center Education)을 참여, 후속연구모임을 통해 연구 및 실행한 경험을 토대로 맥신 그린의 예술교육철학과 교육방법론을 바탕으로 심미적 교육에 관심을 두어 현장에서 적용한 것이다.

‘창작여행! 몸으로 그리는 예술창작놀이터’는 움직임예술과 시각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통합예술 교육프로그램이다. 창작자에 의한 창작물 즉, 예술작품이라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감상하는 사람이 다양한 갈래로 확장하여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 중심의 교육방법으로 진행된다. 하나의 텍스트를 통해 창작하는 과정에서 자유롭게 즐기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감각놀이를 바탕으로 단순하고 기본적인 것에서 출발하여 ‘깊이 관찰하기’, ‘질문을 통한 생각하기’, ‘생각을 반영하여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기’가 이 프로그램의 핵심 활동이다.¹²⁾

친구와 함께 놀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일련의 과정 안에서 예술적 상상력을 깨우고, 자신만의 감성으로 재창조해보는 시간으로 예술을 통한 ‘나’를 발견하고, 이를 출발점으로 점차 주변과 세상을 이어가는 여행을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목표이다.

〈표1〉 고양문화재단 어울림문화학교_ 창작여행! 몸으로 그리는 예술창작놀이터 프로그램

구분	고양문화재단 어울림문화학교	프로그램명	창작여행! 몸으로 그리는 예술창작놀이터
수업기간	2013년 6월 - 현재 (매주 토요일)	수업대상	6-7세 / 초등 1-3학년
수업진행	· 움직임예술과 시각예술 중심의 통합예술교육 프로그램 · 움직임 강사 1인, 시각예술 강사 1인으로 이루어 팀티칭으로 진행		
강의소개	예술로 놀다!! 예술작품이 친구되다!! 친구와 함께 놀고, 생각하고, 표현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 안에서 예술적 상상력을 깨우고 자신만의 감성으로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통합예술교육프로그램이다. 'Play-Think-Art'의 융합적 프로세스를 통해 아이들이 자신 안에 있는 예술성을 스스로 찾고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TA(Teaching Artist)의 질문을 통해 아이들과 예술작품의 핵심주제를 탐구하는 프로그램이다.		

2) 학교 문화예술교육 무용분야_ 초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사례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서울경동초등학교에서 학교 문화예술교육 무용분야 창의적 체험활동¹³⁾의 영역으로 수업을 지난 5년 동안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학교 내의 관련 담당 선생님과 각 학년 부장선생님들의 협의를 바탕으로 전교생 아이들 모두가 무용 수업을 참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기를 희망하여, 2017년도를 제외¹⁴⁾하고는 전 학년을 5차시 또는 6차시씩 진행하였다. 해당학교와 수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2014년도 첫 해에 진행하기 전, 담당교사와 사전협의를 통해 수업의 방향과 목적, 의도를 이야기 나누었고, 그 다음 해부터는 전년도에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을 담임선생님들께서 관찰한 이후, 프로그램에

13) 2019년도 현재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에서는 학교당 연간 최대 450시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무용 분야에서 초등학교 교급에서는 기본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토요동아리, 돌봄교실로 구분하여 선정된 학교에서 예술강사들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14) 해당연도에는 수업시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 충분하지 않아 선별적 학년으로 3개의 학년만 진행하였다.

대해 이해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꾸준히 진행할 수 있었다.

기본교과가 아닌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에서 수업을 진행하고자 했던 까닭은, 예술교육가에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꼭 다뤄달라거나, 아니면 작품발표를 위한 수업을 진행하는 것, 또는 학교교사의 권위적 의식에서 비롯된 외부 강사에 대한 무관심¹⁵⁾ 등 여러 수업의 저해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 무용중심의 과정에 초점을 둔 예술교육으로 진행을 하고자 했던 수업의 방향성 때문이다. 이것은 수업을 진행하는 강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율성¹⁶⁾을 보다 보장받기 위해서이다.

수업의 내용은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주어진 동작을 배우는 주제나 활동을 다루지는 않다. 대신 매 수업시간에 몸에 대한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여 본 주제를 다루기 이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5-10분 정도 진행을 하였다. 수업의 주제를 살펴보면 움직임 교육에만 중점을 둔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어떤 차시는 움직임만의 수업이 아닌 특히 1,2학년은 통합교과로서 교육과정¹⁷⁾이 개정된 이후, 수업 주제에 맞게 과정 안에서 발문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주체적 사고와 표현에 집중하여 진행하였다.

〈표2〉 학교 문화예술교육 무용분야_ 창의적 체험활동¹⁸⁾

구분	학교 문화예술강사 지원사업		분야	무용
수업기간	2014년 3월 - 2018년 12월		대상	서울경동초등학교 1-6학년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연간 수업개요	교육목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신체 움직임으로 표현할 수 있다. 경험으로서의 예술로서 움직임을 통하여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른다. 다 예술장르와 통합적 접근을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다.		
	기대효과	움직임 창작하고 표현하는 과정 안에서 즐거움을 느낀다. 타인과의 소통의 기회를 갖는다. 창의적 표현을 통해 사고하고 감성적 능력을 가진다.		

학년	차시	수업주제	수업목표	학습개념
1	1	안녕하세요?	첫 수업으로 인사를 나누고, 몸의 움직임을 통해 즐거움과 친밀감을 높일 수 있도록 라포를 형성한다.	관계성
	2	이런저런 동물나라	동물들의 특징을 알고 재미난 상상을 통해 나만의 상상동물을 만들 수 있다.	상상표현
	3	소리 그리기	일상의 소리를 탐색하고 탐색한 소리를 선으로, 선을 움직임으로 표현할 수 있다.	소리이미지

15) 배해영(2014)은 예술강사 지원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로 예술강사, 학교(담당교사), 주관기관의 소통과 협력 부족으로 인한 교사들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 학교의 일방적인 수업 배정, 학예회 및 교과내용 이외의 수업 요구, 무용예술강사의 휴식과 업무공간 부족, 그리고 열악한 교육 환경이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16) 핀란드 교사에게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업무 계획을 세우고 교육과정을 수립할 수 있는 자율성이 있다. 이것은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교사교육과 교사의 전문가적 통찰과 판단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핀란드의 끝없는 도전(2016), p169-217

17) 지식정보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 신장에 적합한 질 높은 교육,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인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초등학교 1~2학년군 통합(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교과로 이루어지고 있다.

1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초등학교 무용분야 교수학습자료를 토대로 응용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한 것이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3)

	4	교통표지판으로 움직이기	교통표지판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용하여 움직임 지도를 만들며 기호의 사용을 인지 할 수 있다.	관찰·상상
	5	탈춤 만나기	탈을 쓰고 추는 춤으로 우리나라의 탈춤을 이해하고 구음과 함께 걸음걸이를 한다.	
2	1	춤이 되는 몸 지도	친구의 몸으로 몸 지도를 그려 신체부위별 명칭을 알고 움직임 단어를 탐색하고 탐색한 움직임 표현한다.	신체인식
	2	움직이는 인형	신체 각 관절의 움직임을 이해하여 움직여보고 움직이는 인형을 만들어 동작을 관찰하여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신체인식
	3	내 몸 보호하기	동물들의 다양한 자기보호방법에 대해 알고, 자신의 몸과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한 움직임을 찾을 수 있다.	관찰표현
	4	거미줄을 쳐 보자	직접 퍼포먼스 예술을 경험하고 다양한 예술 활동에 대해 알 수 있다.	관찰·상상
	5	꿈꾸는 아이들	그림책을 통해 단어의 중의적 표현과 작가의 그림책 속 숨어있는 코드를 해석하는 즐거움을 안다.	상상표현
	6	그림 속 춤 이야기	그림을 통해 우리의 전통을 이해하고 그림 속 한 부분을 직접 그려 완성하고 움직임으로 표현할 수 있다.	민속
3	1	무용이 무엇일까요?	무용의 개념을 알고 발생을 알 수 있다.	무용의 개념
	2	내 몸이 움직여요	신체 다양한 부위를 이해하고 인식하며 부위별로 움직일 수 있다.	신체인식
	3	점점 빠르게 점점 느리게	속도의 개념을 알고 움직임의 빠르기를 변화시킬 수 있다.	시간
	4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정지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통하여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다.	신체 조절
	5	움직임으로 글자 만들기	움직임으로 글자를 만들 수 있고 여럿이서 움직임 구성을 할 수 있다.	신체 모양
	6	요리조리 이동하기	다양한 방법으로 이동움직임을 해보고 나만의 방법으로 경로를 바꾸어 움직임을 할 수 있다.	경로
4	1	이름말하며 춤추기	나 자신을 하나의 움직임으로 표현하고 움직임을 통한 의사소통의 방법을 이해한다.	상징 표현
	2	움직이고 멈추고	신체를 움직이고 멈추기를 할 수 있고 움직임 동작을 통해 자신의 몸을 조절할 수 있다.	신체조절
	3	직선으로 곡선으로	직선과 곡선 움직임을 탐색하여 선을 이용해 다양한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다.	공간
	4	오브제로 춤추기	오브제의 성질을 탐색하고 통하여 오브제를 활용하여 움직임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관계
	5	친구와 이어져서 춤추기	친구와 접촉해서 떨어지지 않고 춤출 수 있고 다양한 부위를 사용해서 접촉할 수 있다.	신체조절
5	1	신체인식	다양한 신체부위를 인식하고 움직이고 표현할 수 있다.	신체인식
	2	멀리, 가까이	공간의 요소 중 거리의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다.	거리
	3	움직임 단어로 춤추기	움직임 단어들을 듣고 방향, 높이, 속도 등을 변화시키며 움직임으로 표현할 수 있고 연결된 동작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동, 비이동 움직임
	4	고무줄로 춤추기	고무줄 움직임의 특징을 알고 고무줄의 특징을 이용하여 창의적 표현을 할 수 있다.	관계
	5	춤과 글쓰기	몸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언어로서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자 자신의 춤에 대한 생각을 공유한다.	무용과 글쓰기
6	1	뮤지컬에서의 무용은 어떤가요?	무용과 뮤지컬의 연계성을 알 수 있고, 뮤지컬에서 무용의 역할을 인식할 수 있다.	무용과 뮤지컬
	2	균형을 잡아봅시다 I	신체의 균형에 대해 탐색해보고 다양한 신체부위를 사용하여 균형을 잡을 수 있다.	균형
	3	균형을 잡아봅시다 II	알렉산더 칼더의 모빌 작품을 만나고 나만의 작품으로 완성한다.	균형

4	그림을 움직임으로	신체의 움직임으로 다양한 형태를 탐색하고 그림에서의 형태를 움직임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림표현
5	나도 우르주스 베일리!	스위스의 코미디언이자 예술가인 우르주스 베일리의 발칙하고 기발한 작품들을 만난다.	무용과 미술

2. 움직임 교육의 새로운 발견

무용 수업을 경험한 아이들의 기록이다. <표3>은 3학년 때부터 5학년까지 3년 동안 아이들과 수업을 꾸준히 진행한 이후, 수업의 마지막 차시에 그동안 경험한 무용 수업을 바탕으로 개인의 생각을 바탕으로 의미화 하는 과정으로 글로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이 수업에서 본인들이 경험한 무용에 대한 생각을 그들의 언어로서 문화예술교육, 움직임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교수방법으로 진행해야할지 기초자료로서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표3> 경험을 통한 자신의 언어로 춤에 대해 글쓰기

2016년도 5학년 5차시 [춤과 글쓰기_ 무용이란? ○○다]	
▶ [무용은 자유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_ 김민채
▶ [무용은 움직임이다]	사람이 움직여야 어떤 동작이 나오기 때문이다_ 윤채원
▶ [무용은 자유다]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이다_ 박수정
▶ [무용은 아름다움이다]	예술처럼 천천히 자유롭게 움직여서_ 고효빈
▶ [무용은 느낌이다]	무용을 할 때 많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_ 문무현
▶ [무용은 느낌적인 느낌이다]	무용은 자신이 생각하는 느낌으로 몸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_ 이현채
▶ [무용은 몸이다]	무용은 온 몸으로 하기 때문이다_ 김지연
▶ [무용은 노련함이다]	노련함이 있어야 위기(창피함)를 모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_ 최윤
▶ [무용은 명상이다]	무용을 하면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_ 임정빈
▶ [무용은 화려함이다]	하나의 물건이라도 화려하게 변신하고 마음도 자유롭게 변하기 때문이다_ 박민진
▶ [무용이란 밀크 초콜릿이다]	내가 밀크 초콜릿을 먹을 때 느낌만큼은 아니지만 재미있기도 하고 먹을 때처럼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기 때문이다_ 강은지

- ▶ [무용은 나이다]
내가 있기에 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_ 유정연
- ▶ [무용은 여행이다]
여행을 다니며 경험을 쌓듯 무용도 또 다른 경험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_ 김민정
- ▶ [무용은 비빔밥이다]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 맛있게 때문에_ 윤한솔
- ▶ [무용은 건강한 삶이다]
무용은 할수록 재미있고 유연성이 늘어나기 때문이다_ 박수빈
- ▶ [무용은 무지개이다]
무지개는 칸마다 색이 다르고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듯이 무용도 각각의 매력이 있다_ 유예린
- ▶ [무용은 사람과 춤이 만든 작품이다]
우아하게 사람이 몸을 움직이기 때문이다_ 이재훈
- ▶ [무용은 마음이다]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여 추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생각한다_ 김유민
- ▶ [무용은 흐느적거림이다]
음악을 느끼며 최대한 느낌 있게 움직여야하는데 그러다보면 흐느적거리게 되고 그러다보면 흐느적거리는 일이 많아지기 때문이다_ 임채균
- ▶ [무용은 발견이다]
갈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기 때문이다
- ▶ [무용은 협력이다]
서로 협력하며 나아가기 때문이다_ 오다연
- ▶ [무용은 움직임이다]
움직임에서 무용이 시작되기 때문이다_ 최지훈
- ▶ [무용은 게임이다]
게임도 하다보면 재미있는 것처럼 무용도 처음엔 낯설었는데 할수록 재미있기 때문이다
- ▶ [무용은 새로움이다]
나와 무용은 멀고 친하지 않은데 조금 더 가까워졌기 때문이다_ 노서현
- ▶ [무용은 행복이다]
친구들과 같이 협동하며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이다_ 권서연
- ▶ [무용이란 미스터리이다]
한 가지 주제를 정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끝도 없이 동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_ 강태인
- ▶ [무용은 창의력을 응용한 움직임이다]
여러 가지 동작을 상상해내고 구성하며 만들어내는 것이 무용이기 때문이다_ 김민기
- ▶ [무용은 생각이다]
수학 같은 과목은 정답을 찾아야 하지만 무용은 내 생각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_ 이연진
- ▶ [무용은 생각하는 움직임이다]
무용은 움직이며 생각하기 때문이다_ 임태인
- ▶ [무용은 성장이다]
계속 배울 것이 생기고 배우는 것이 늘어나기 때문이다_ 심재린
- ▶ [무용이란 돌보기이다]
무용을 하면 자신이 더 잘 보이기 때문이다_ 이민규

- ▶ [무용은 예술이다]
아름답게 몸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이다_ 김민찬
- ▶ [무용은 박보점이다]
알면 알수록 더 멋있기 때문이다_ 이승현
- ▶ [무용은 용기이다]
춤을 추려면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_ 정성욱
- ▶ [무용은 바늘이다]
꼭꼭 찌히는 듯한 고통이 있기 때문이다_ 조서운
- ▶ [무용은 인어공주이다]
동화 속 다리가 아프고 목소리를 바친 인어공주처럼 아름다움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기 때문이다_ 강승주
- ▶ [무용은 아름다움이다]
무용을 하는 동작에는 아름다움이 묻어 있기 때문이다_ 최정아
- ▶ [무용은 자유시간이다]
공부만하다가 자유롭게 움직이고 웃고 떠들며 몸을 움직여서_ 이서빈
- ▶ [무용은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처럼 자유롭게 때문이다_ 김소정

2016년 경동초 5학년 수업 기록 중 발췌

III. 결론 및 제언

시대의 요구에 따라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비판적 사고 및 판단력, 커뮤니케이션, 협업의 3C 핵심역량을 길러내기 위한 문화예술교육, 움직임 교육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삶의 맥락에서 문화예술교육, 움직임 교육은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예술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창조적인 공간으로서 가능성에 대해 두 사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현장을 고려한 교육정책과 지속적 행정지원이 중요하겠다. 앞서 언급한대로, 몸은 각자 개인의 역사성과 사회성이 포함하고 있으며 여러 경험들이 중첩되어 있는 공간이다. 몸이 가진 기억이 어떤 순간을 만났을 때, 발현이 되는 것으로 어떤 신비루처럼 이후 바로 효과를 드러나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책과 행정의 방향성이 흔들리거나 상황이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지원으로 교육 현장이 쉽게 흔들린다면 2017년에 학교의 요구와 관계없이 시수가 줄어서 선별적으로 일부 학년만 수업이 진행되거나 이후 수업이 진행되지 않아 아이들에게 예술교육이 가진 가치와 역할에 대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다.

둘째, 어른들의 예술을 통한 경험에서 시작되는 인식 변화이다. 여기서 말하는 어른들은 부모, 학교 교사, 예술교육가, 관계기관의 행정가들의 경험을 통한 관심과 신뢰이다. 2018년 겨울, 대한

민국을 흔들어놓은 드라마¹⁹⁾가 있었다. 부에 따른 교육의 불균형과 부모들의 불안에서 오는 사교육, 그리고 경쟁이 낳은 아이들의 모습을 그대로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의 그림자와 같은 어두운 면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적극적인 어른들의 공동의 문제로 이에 대한 대안을 우리는 고민해야 할 시기인 것이다.

셋째, 아이들이 예술교육을 통해 스스로를 깨닫게 하는 상상력 교육으로서 자신이 관찰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있는지,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주체적으로 삶과 연결지어 생각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촉진자²⁰⁾의 역할로서 문화예술교육, 움직임교육의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예술교육의 연구와 실행의 과정은 상당 부분 창작가가 창작을 하는 과정처럼 연구단계에서부터 출발하지만, 극히 일부 지원사업에서만 연구하는 과정의 비용이 책정이 되어있다. 이러한 부분은 수업시간 이외에 이루어지며, 이는 수업의 질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연구 개발비용이 책정이 되어 있는 사업의 예술교육가들만이 질 높은 문화예술교육을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연구지원이 없이는 대부분의 예술교육가들이 수업시간을 늘리는데 급급하다보면 질적인 프로그램 실행을 결코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은 지극히 분명한 사실이다.

예술을 통해 느낄 수 있는 말로 형용되지 않은 순간들이 발화될 수 있도록 영유아·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움직임 교육의 첫 시작을 몸에 남은 인상과 견고한 기록으로 삶과 연결된 가능한 다양한 사례들이 드러나는 것이 향후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일 것이다.

19) JTBC 드라마 'SKY캐슬'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방영된 드라마로, 대한민국 상위 0.1%가 모여 사는 SKY 캐슬 안의 이야기로 코믹 풍자드라마이다.

20) 2011년도 서울문화재단의 서울국제예술교육워크숍 미국 링컨센터 에듀케이션(LCE-Lincoln Center Education) 심화과정에서 예술가교사(teaching artist)가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로서 실질적인 교수법으로 교안을 작성하거나 역할이 되어 탐구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참고문헌

- 강인애, 이현민, 김양수(2015), 온라인 박물관을 활용한 시각문화미술교육의 수업사례; 맥락적 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중심으로, 한국조형교육학회 No.56, 1-34
- 김말복(2011) 무용예술코드, 한길아트
- 김명희, 서예원 외, 초등학교 무용분야 교수학습자료(201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김채현(2008), 춤, 새로 말한다 새로 만든다, p129-146
- 배혜영(2014), 예술강사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무용예술강사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정책학회지 제12권 4호 통권31호 p113-126
- 신상미, 김재리(2010), 몸과 움직임 읽기, 라반 움직임 분석의 이론과 실제, p33-35
- 임미혜, 진은영(2018), 디지털 시대 예술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위한 탐색적 연구, 문화예술교육연구, 제13권 4호, p1-24
- 파시 살베르그(2016), 핀란드의 끊임없는 도전 그들은 왜 교육개혁을 멈추지 않는가, p169-217
- 조정희, 조기숙(2010) 무용수의 '몸 주체성' 인식에 기반한 안무자의 작품분석: 무용작품 <walk>를 중심으로, 무용역사기록학 제35호, p238-
- 황정옥(2018), 문화예술교육에서 무용교육의 위치와 기능, 공연문화연구, 36권 p531-551
- Giaccardi, E.(2006). Collective storytelling and social creativity in the virtual museum a case study. Massachusetts Institutes of Technology Design Issue, 22(3), 3229-41.
- Green, M.(2011), 블루 기타 변주곡 Variations on a Blue Guitar. 문승호 역, 다빈치
- Runco, M. A (2004). Creativit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5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252954&plink=SEARCH&cooper=SBSNEWSSEARCH
- SBS 뉴스, 2019.05.05. 뱃속 플라스틱 쓰레기 '가득'...폐사해 돌아온 바다거북
-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412581>
- 경남매일, 2019.04.25 왜 우리는 분노 하는가?
-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asp?number=201904221032427055C048
- 경기도 뉴스 포털 보도자료, 2019. 4. 26.

제 3 발표

문화예술교육의 원천, 무용 아카이브

김도연(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연구원)

문화예술교육의 원천, 무용 아카이브

김도연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연구원)

문화예술교육의 원천, 무용 아카이브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김도연

Contents

01. Introduction
02.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03. Rambert Dance Company Archives
04. Royal Ballet School Special Collections
05. University of Surrey Archives and
The National Resource Centre of Dance
06. Conclusion

01. Introduction

What is an 'Archives'?

→ 기록(records)의 집합체 또는 기록보존소

→ 증거/업무지원 → 역사연구 → ∞

What is a 'Dance Archives'?

→ 무형의 춤(intangible)을 유형 기록매체(tangible)에 담아낸, 무용과 관련된 모든 기록(records)의 집합체 또는 기록보존소

→ 창작 과정 및 완성된 작품과 관련된 모든 자료

→ 무용 예술활동의 주체(인물, 단체 등)와 관련된 모든 자료

→ 문화유산, 연구, 교육, 홍보, 예술활동을 위한 자원 등의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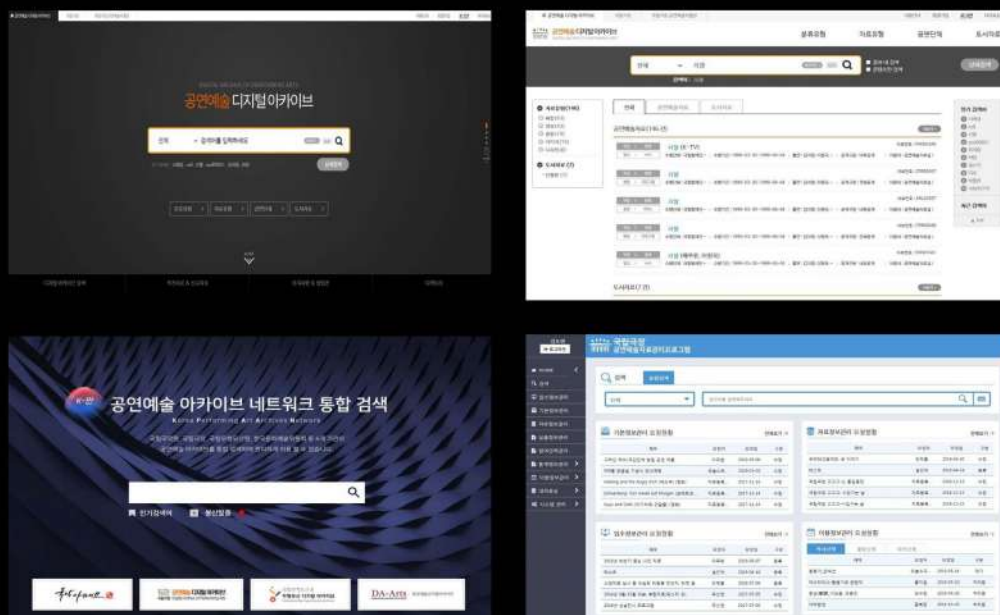
02.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02.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기관소개

- 국내 최초의 공연예술박물관
- 전속단체인 국립무용단, 국립창극단, 국립국악관현악단 및 MOU를 맺은 국립극단,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등의 자료 수집
- 1종 전문박물관으로써 약 22만점 이상의 자료 소장
- 공연예술박물관 자료실 또는 디지털 아카이브 사이트를 통해 자료이용
- 공연예술 아카이브 네트워크 통합검색 K-판 개설(국내 4개 기관)
- 상설전시 및 기획전시(매년1회 이상) 운영
- 교육 프로그램 운영

02.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아카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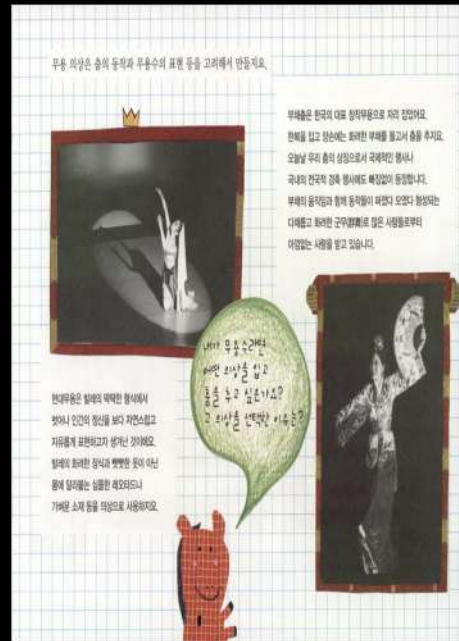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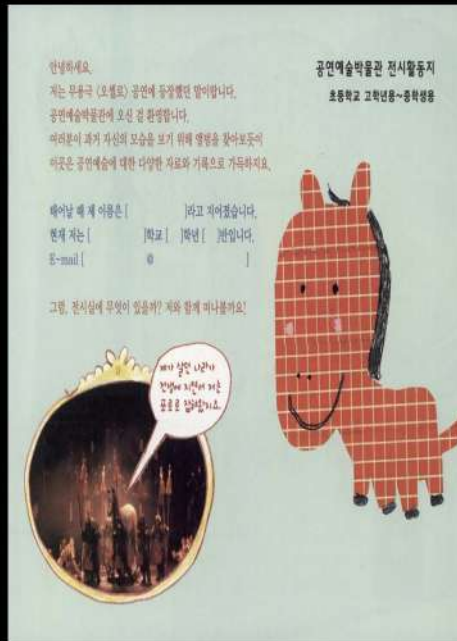
02.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교육적 활용



02.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교육적 활용



02.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교육적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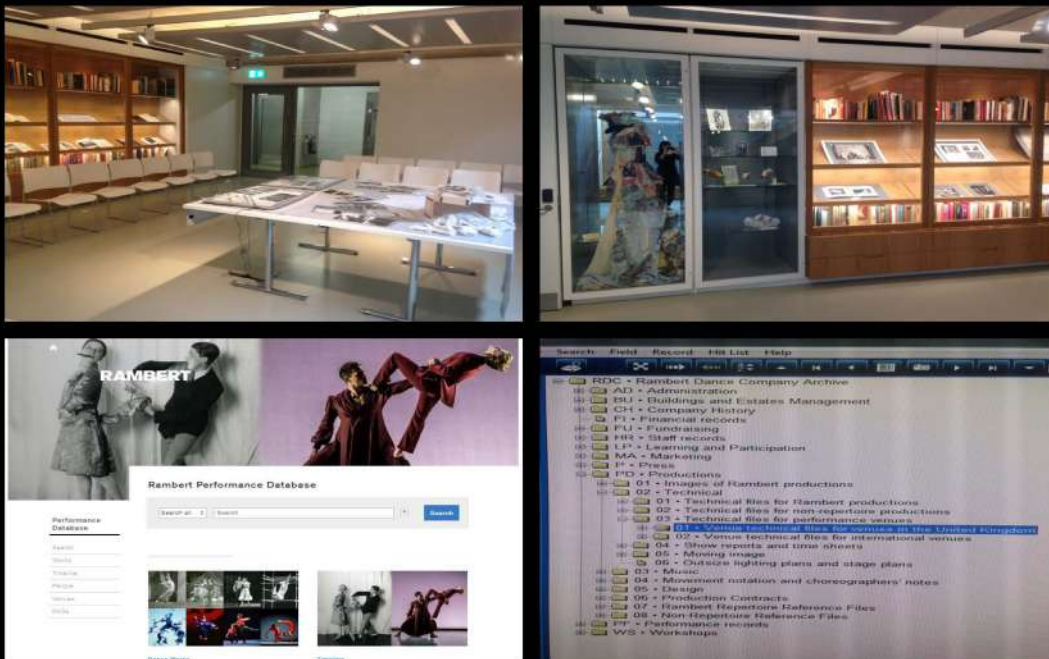
03. Rambert Dance Company Archives



03. Rambert Dance Company Archives 기관소개

- 영국을 대표하는 현대무용단
- 1982년 아카이브 구축, 가장 오래된 자료는 1926년 생산
- 기관 설립자, 이사진 및 운영진, 건축, 작품 창작 및 실연, 안무가 및 무용수 등과 관련된 무용단과 관련한 모든 자료 수집
- 램버트 무용단과 관련된 문화예술분야의 인물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료 수집
- 작품, 시대, 사람, 장소별 자료 데이터 베이스 검색 가능
- 램버트아카이브에서 디지털화된 프로그램 자료 이용 가능(시대별/장소별 분류)

03. Rambert Dance Company Archives 교육적 활용



04. Royal Ballet School Special Collections



04. Royal ballet school special collections 기관소개

- 영국을 대표하는 클래식 발레 교육 기관
- 로열 발레단과 버밍엄 로열 발레단 단원을 목표로 인재 육성
- 1926년 로열 발레 스쿨 설립 이후 관련 자료들 보존
- 로열발레단과 버밍엄 로열 발레단과 관련한 자료들 보존
- 니네프 드 발루아, 베라 볼코바, 마고트 폰테인, 에릭 브룬, 루돌프 누레예프 등
- 학생 및 지도 교사들의 적극적인 아카이브 활용

04. Royal ballet school special collections 교육적 활용

Our Ballet History Timeline



- 타임라인을 통해 발레사와 관련한 전문 정보 및 소장자료(디지털화 이미지) 제공
- 타임라인 이용방법 동영상으로 제작

05. University of Surrey Archives & The National Resource Centre of Dance

[Staff & Students](#)

[SUBJECTS ▼](#)
[DISCOVER SURREY](#)

LIBRARY & LEARNING SUPPORT

- A-Z Index
- About Us
- News
- Information For
- Using Library Resources
- My Subject
- SPLASH & Study Skills
- Researcher Development
- Disability & Dyslexia

NATIONAL RESOURCE CENTRE FOR DANCE

The National Resource Centre for Dance (NRCD) was founded in 1982 with the aim of providing support services to dance education and research. It does this through two main areas of work: courses and publications for dance teaching and study; and an archive collection which is open to researchers and is actively utilized in research projects. Full details of all our activities and services are available on this site.

Contact Details

NRCD
University of Surrey
University Library
Guildford
GU2 7XH
email: nrcd@surrey.ac.uk
tel: 01483 689316
fax: 01483 689500 Attn NRCD

[Training](#)
[Online Store](#)

NEWS

05. University of Surrey Archives & The National Resource Centre of Dance 기관소개

- 1982년 무용 교육과 연구를 위해 서리 대학교 내 설립
- 영국 중심 무용예술활동 관련 60종류 이상의 컬렉션으로 구성
- 무용, 극장, 인물, 동작 분석, 무용 심리, 동작 치료 등과 관련한 자료 소장
- 람버트 댄스컴퍼니, 루돌프 라반, 할리퀸 발레단, 코쿠마 댄스 씨어터, 쇼바나 제야싱 무용단 등과 관련한 자료 소장
- 소셜 미디어를 통한 기관, 활동, 컬렉션 등 홍보 및 이용자와의 소통

05. University of Surrey Archives & The National Resource Centre of Dance 교육적 활용

- 자료 이용을 위한 이용자 단계별 교육 및 상담 실시
- 그룹별 강의 및 소개(Talks&Presentations) 실시
- 아카이브 소장자료를 활용한 무용 교구 등 출판물 제작 및 판매
- 안무 분석, 동선, 음악 및 디자인, 사진, 참고 문헌, 교구 활용법 등 포함
- 특정 행사나 활동, 기념일과 관련한 자료 기관 내 진열
- 소장자료의 외부 전시 진행 (대여 포함)
- 범국가적 차원의 캠페인 및 프로그램 참여 (ex. Heritage Open Day)

06. Conclusion

기록학 측면

- 무용 기록에 대한 기준 및 방법론 정립 필요
- 특정 분야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맥락 및 전문 정보의 철저한 보존 관리
- 아카이브 구축·운영·관리에 무용 전문인력 참여 독려
- 문화예술분야의 아키비스트 역할 및 전문성 확대

무용·교육학 측면

- 교육·연구·창작활동을 위한 원천이자, 생각과 대화의 도구로서 아카이브에 대한 인식 변화
- 무용분야·교육기관의 아카이브 구축·운영·활동에 적극 참여(주체자 또는 감시자 역할)
- 원자료(raw materials)를 활용한 다양한 교수법 개발 및 연구 필요
- 무용예술(intangible), 아카이브(tangible), 디지털 기술(technology)이 결합된 미래교육환경



감사합니다

제 4 발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한
유아 및 어린이 발레교육

최진수(사울발레시어터 단장)

노민혁(사울발레시어터 공연사업팀장)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한 유아 및 어린이 발레교육

최진수(서울발레시어터 단장) · 노민혁(서울발레시어터 공연사업팀장)



INDEX

1. 서울발레시어터
2. 더불어 행복한 발레단
3. Q&A



서울발레시어터 최진수 단장

단장 겸 예술감독 최진수

現) 서울발레시어터 단장
발레STP협동조합 상임이사
한국프로발레협회 상임이사
무용역사기록학회 이사
세계무용연맹 한국본부 이사

前) Swans 예술감독
서울발레시어터 단원
유니버설발레단 단원

학력) 단국대학교 무용학과 박사과정 수료

수상) 제17회 한국발레협회 신인안무가상
제37회 한국무용협회 신인콩쿨 특상

Seoul Ballet Theatre

SEOUL BALLET THEATRE
서울발레시어터

“대한민국 발레의 창작과 대중화”를 모토로

1995년 창단되어, 현재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 열정**과 **실험정신**을 바탕으로

창작 발레의 지평을 넓혀왔다.

고전 발레의 전통을 살리면서도 **모던 및 컨템퍼러리 발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안무를 활용해 **독창적 예술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Seoul Ballet Theatre

SEOUL BALLET THEATRE 서울발레시어터 - 연혁

- 1995 · 순수민간예술단체로 창단 / 락발레 <현존(Being)1> 아르코예술극장 초연
- 1998 · 올해의 예술상 안무가상 수상
- 2000 · 예술의 전당 입주 / 모나코 댄스 포럼(Monaco Dance Forum) 초청 공연
- 2001 · <Line of Life> 미국 네바다 발레시어터 작품 수출
- 2002 · 과천시민회관 상주단체 활동
- 2008 · 미국 아리조나 노바발레단 작품 수출 <Inner Moves>
- 2010 ·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연극무용부문 대통령상 수상
- 2011 · <Life is...>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오페라극장 홀리스 발레교육 진행
- 2014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 표창' 서울발레시어터 수상
- 2015 · 스위스 바젤 발레단과의 문화교류 프로젝트 <MOVES>
- 2016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산실 무용부문 창작지원 작품 <시집가는 날> 선정
- 2017 · <한여름밤의 꿈> 제7회 대한민국발레축제 선정
- 2018 · <빨간구두 - 영원의 춤> 경기공연예술페스타 베스트컬렉션 선정
- 2019 · <댄싱뮤지엄> 경기공연예술페스타 베스트컬렉션 선정

Seoul Ballet Theatre

SEOUL BALLET THEATRE 서울발레시어터 - 사회공헌활동

- 서울발레시어터 사회공헌활동 -

홀리스 발레교실

Big Issue 잡지를 판매하는
홀리스에게 발레로
건강한 몸과 마음을
되찾게 해주는 프로그램



과천시민발레

지역사회 문화예술의
활성화 비전과 발레 대중화라는
공유가치를 바탕으로 시작된
일반인 대상 발레 교육 프로그램



찾아가는 발레교실

공연 예술 중 관람 문턱이
유독 높게 느껴지는 발레라는 장르를
친숙한 발레,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발레로
인식확대의 토대를 만들고자 함



Seoul Ballet Theatre

더불어 행복한 발레단

Seoul Ballet Theatre

SEOUL BALLET THEATRE
서울발레시어터 - 더불어 행복한 발레단



Seoul Ballet Theatre

SEOUL BALLET THEATRE

서울발레시어터 - 더불어 행복한 발레단 공연 포스터



Seoul Ballet Theatre

SEOUL BALLET THEATRE

서울발레시어터 - 더불어 행복한 발레단 기획의도

더불어 행복한 발레단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발레를 배우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제공

장애아동에게 장애인의 문화 여가활동 중 가장 접근도가 떨어지는 무용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

장애아동의 신체 활동을 독려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증진

장애 인식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더불어 행복한 발레단> 사업을 확대하여 장애에 대한 인식 및 환경개선

Seoul Ballet Theatre

SEOUL BALLET THEATRE
서울발레시어터 - 더불어 행복한 발레단

더불어 행복한 발레단

주최 : 보건복지부 / 주관 : 서울발레시어터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자 운영된 어린이 발레단

- 1기 2013년 4월20일~11월30일 장애9명, 비장애10명=총 19명
2013년 11월30일 과천시민회관 소극장 공연
- 2기 2014년 6월21일~11월8일, 과천/대전지역 운영 (총 35명)
2014년 11월8일 국립중앙박물관 극장용 공연
- 3기 2015년 6월27일~11월1일, 과천/대전지역 운영 (총 40여명)
2015년 11월1일 국립중앙박물관 극장용 공연
- 4기 2016년 11월 5일 영등포 문화예술회관(1,2,3기 선배+40명)

총 인원 1~4기 : 134명

 Seoul Ballet Theatre

SEOUL BALLET THEATRE
서울발레시어터 - 더불어 행복한 발레단

더불어 행복한 발레단 주차별 교육일정

회차	내용
1회차	오리엔테이션
2-6회차	비장애아동 클래스 1시간 진행 후 통합 클래스
7-19회차	통합 발레 클래스 및 공연 연습
20-21회차	무대 리허설
22회차	<더불어 행복한 발레단> 공연

 Seoul Ballet Theatre

SEOUL BALLET THEATRE
서울발레시어터 - 더불어 행복한 발레단

더불어 행복한 발레단

장애 / 비장애 아동

꿈꾸는 발레단

장애 아동

 Seoul Ballet Theatre

SEOUL BALLET THEATRE
서울발레시어터 - 더불어 행복한 발레단

 Seoul Ballet Theatre

SEOUL BALLET THEATRE
서울발레시어터 - 더불어 행복한 발레단



Seoul Ballet Theatre

SEOUL BALLET THEATRE
서울발레시어터 - 더불어 행복한 발레단



Seoul Ballet Theatre

SEOUL BALLET THEATRE
서울발레시어터 - 더불어 행복한 발레단



Seoul Ballet Theatre

SEOUL BALLET THEATRE
서울발레시어터 - 더불어 행복한 발레단



Seoul Ballet Theatre

SEOUL BALLET THEATRE
서울발레시어터 - 더불어 행복한 발레단



Seoul Ballet Theatre

SEOUL BALLET THEATRE
서울발레시어터 - 더불어 행복한 발레단



Seoul Ballet Theatre

SEOUL BALLET THEATRE
서울발레시어터 - 더불어 행복한 발레단



Seoul Ballet Theatre

SEOUL BALLET THEATRE
서울발레시어터 - 더불어 행복한 발레단



Seoul Ballet Theatre

SEOUL BALLET THEATRE
서울발레시어터 - 더불어 행복한 발레단



보건복지부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 광고>

Seoul Ballet Theatre

SEOUL BALLET THEATRE
서울발레시어터 - 더불어 행복한 발레단 인터뷰



Seoul Ballet Theatre

SEOUL BALLET THEATRE

서울발레시어터 - 더불어 행복한 발레단 인터뷰

“<더불어 행복한 발레단>에서 작품을 준비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열정을 느꼈고

장애아동들도 무대에 설 수 있고 잘해낼 수 있다는 것을 느낀 것 같아요.”

-더불어 행복한 발레단 2기 임송 학생 어머니

“<더불어 행복한 발레단>에서 발레를 배우면서

‘장애’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너무 잘 어울리고 즐겁게 <더불어 행복한 발레단>에 참여했었어요.”

-더불어 행복한 발레단 2기 곽서은 학생 어머니

“<더불어 행복한 발레단>에 참여하면서 아이의 사회성과 유연성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아이가 작품을 준비하고, 무대에 올라가서 공연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도 많은 용기를 얻었어요.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부모님에게 정말 추천해주고 싶은 프로그램이에요.”

-더불어 행복한 발레단 3기 박수연 학생 어머니

Seoul Ballet Theatre

SEOUL BALLET THEATRE

서울발레시어터

무용은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므로

‘인간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예술’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어떤 도구를 필요로 한다거나 하는 제약이 없이

신체 언어를 통해 내면세계를 형상화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무용은 몸짓을 통해 언어로써 구사하기 힘든 감정 상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Marcia B.L., 1972)

Seoul Ballet Theatre

SEOUL BALLET THEATRE
서울발레시어터

신체를 움직이는 활동은 신체적 발달 뿐만 아니라
지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조화로운 발달을 꾀할 수 있는데
특히 무용은 **‘신체 움직임’**과 **‘감정 표현’**을
동시에 함으로써 전인적 발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임인선, 1994)

Seoul Ballet Theatre

SEOUL BALLET THEATRE
서울발레시어터

여러 창조적 예술 표현 중에서도 **무용**은
인간신체를 중간 매개체로 이용하기 때문에
자신의 **정서적, 심리적 상태를 표현함**으로써
치료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예술이므로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함께 영유할 수 있는 무한한 가치가 있다.

(Leste & Rust, 1990)

Seoul Ballet Theatre

Q&A

 Seoul Ballet Theatre

감사합니다



 Seoul Ballet Theatre

한국무용과학회지 투고 안내

1. 한국무용과학회지 논문투고

▶ 논문투고 및 학술지 발행일정

	1호	2호	3호	4호
투고 마감일	11월 31일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학술지 발행일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 ▶ 한국무용과학회지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입니다.
- ▶ 논문투고에 관한 모든 내용은 학회 홈페이지 www.dancescience.or.kr 학회지논문투고에 가시면 상세히 볼 수 있습니다.
- ▶ 한국무용과학회는 온라인 논문투고 (<http://ksds.jams.or.kr>)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 ▶ 논문투고 심사비 입금계좌는 회비입금 계좌와 다르니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투고논문 심사비회비: KEB 하나은행 540-0910384-54907 (홍애령)
 - 문의처: 총무이사 홍애령 (010-4288-1725)
 - 간 사 이지혜 (010-7550-8094)
 - 사 무 국 (02-760-5872)

2. 회원가입 안내

- ▶ 한국무용과학회는 “변화를 주저하지 않는 열린 학회”입니다. 무용에 대한 합리적 연구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회원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학회 홈페이지 www.dancescience.or.kr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회원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회비를 납부하신 후 학회사무국으로 반드시 확인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회비 납부계좌: IBK기업은행 689-000425-01-031 (박재홍)
 - 연락처 : 사무국(02-760-5872), 간사(010-7550-8094)
- ▶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며, 회비와 가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유형	연회비	비 고
정회원 (이사)	이사 20만원 부회장 30만원	대학에서 무용 또는 관련 과정을 수학(혹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라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하고 무용과학에 관심을 가진 분으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 승인으로 가입
준회원 (일반, 학생)	5만원 (가입비 2만원)	무용과학에 관심 있는 사람은 가입가능하며, 최초 가입 시 연회비 이외 가입비 2만원을 별도 납부

- ▶ 온라인 가입이 어려운 경우, 가입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학회 이메일로 보내시고 반드시 사무국으로 연락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9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_문화예술교육 유관학회 세미나

제40회 한국무용과학회 춘계학술심포지엄

인 쇄 / 2019년 5월 23일

발 행 / 2019년 5월 25일

발행처 / 한국무용과학회

전화: 02) 760-5872

팩스: 02) 760-4485

www.dancescience.or.kr

ksds.jams.or.kr

제작처 / 레인보우박스

전화: 02) 2032-8800

팩스: 02) 871-0935
